조선 초·중기 출토 허리끈의 유형과 구조 - 여산 송씨 출토 허리끈을 중심으로 -

손희진¹⁾ · 권영숙²⁾

¹⁾부산대학교 의류학과

²⁾부산대학교 한국전통복식연구소

The Type and Structure of Men's Belt in Early-Middle of Chosun Era

Hee-Jin Son¹⁾ and Young-Suk Kwon²⁾

¹⁾Dept. Clothing & Textiles, Pusan National University

²⁾Traditional Costume Research Institute, Pusan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 This was written based on the type and structure of Korean man's waist belt in the early and middle era of the Chosun era. The waist belt was excavated from the Mokdaldong in the Daejeon city. The types of Korean man's waist belt in the Chosun era were classified into Wondahae (i.e., round shape belt) and Gwangdahae. The Wondahae consist of two types which are circle shaped and straight types. The circle shaped wondahae contain one fringe in the main body of the belt and its joint part is decorated with a small network such as lacing decoration with the size about 1 cm around. The shape of the Wondahae has been changed from the circle shaped into the straight types and also has a tendency to be wider and longer as time went by. The standard form of the Gwangdahae is straight with about 2-3 cm width and elaborated by lacelike fringe as well. This also has a tendency to be wider starting from the 1600s show. The structure of these belts were divided into braid and ornament parts. The ornament part was constructed with the lacelike netting and fringe parts. The sophisticated craft techniques have a great decorative beauty. Through an analysis of FT-IR, the materials of those three belts are known which are made of the silk and the core thread was filled with cotton. Moreover, it can be confirmed that the glitter material of the ornament part were designed with gold foil and has been analyzed with SEM-EDX.

Key words: Chosun era, men's belt, excavated costume, Korean traditional knot, Wondahae, Gwangdahae

1. 서 언

최근 전통 복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그를 응용한 디자인 개발이 다양해지면서, 복식의 재현이나 새로운 상품개발에 필요한 보다 정확하고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게 되었다. 특히 매듭과 끈목은 우리의 일상을 둘러싼 많은 생활 용품에 사용되므로 그 활용분야가 다양하고 매듭과 장신구를 이용한 다양한 아이템을 창출할 수 있는 요소가 된다.

이에 본 연구는 2004년 대전 목달동에서 출토된 조선 초·중기 여산 송씨 출토 허리끈을 중심으로 조선시대 남자들의 편복 포에 기능성과 심미성을 겸하여 사용된 남자허리끈의 형태와 구조변화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들은 출토 당시 부산대학교 부설 “한국전통 복식연구소”에서 보존처리 되었으며 조선시대 15, 17세기 중 후반기의 사대부가 착용하였던 허리끈의 유형 및 구조를 면밀하게 고찰할 수 있는 몇 개 되지 않은 조선

초중기 유물에 속하므로 동시대에 출토된 타 출토유물들과 비교 고찰을 함께 병행함으로써 조선시대 남자허리끈을 통하여 매듭공예의 정교함을 밝히고 이를 현대화 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제공함에 연구목적을 두었다.

2. 연구방법

2.1. 문헌 고찰

여산 송씨 출토 허리끈과의 비교고찰을 위하여 그동안 한국에서 출토된 조선시대 출토 허리끈 관련 보고서들을 비롯하여 관련 논문과 고문헌, 그리고 매듭관련 단행본들을 참고로 하였다.

2.2. 실증적 고찰

여산 송씨 출토 허리끈인 원다회 대 2점(송효상 묘 출토 1점, 송희중 묘 출토 1점)과 광다회 대 1점(송효상 묘 출토)을 대상으로 허리끈의 구조와 형태, 특성, 치수 등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분석고찰한 뒤 이를 보고서에 나타난 조선시대 출토 허리끈들과 비교하였다.

Corresponding author; Young-Suk Kwon
Tel. +82-51-510-2844, Fax. +82-51-583-5975
E-mail : kwonys@pusan.ac.kr

Table 1. 출토 원다회 대

유형		출 토 유 물 내 역		
원 통 형	유물사진
	묘주	전주이씨 문양군(1431~1489년)	송효상(1430~1490추정)	송희종(1600년대 중~후)
	치수	상세 설명 없음	L: 404, R: 0.3	L: 450, R: 0.35
원 다 회 대	유물사진
	묘주	문익신 (1556~1645)	전주이씨 의원군(1661~1722)	이익정(1699-1782)
	치수	L: 178+?(술 꿰어짐), R: 1.1	L: 253, R: 0.6	L: 230, R: 0.8
일 자 형	유물사진
	묘주	전주이씨 이연웅(1818~1879)		
	치수	L: 84, R: 1		

유물의 재질분석은 FT-IR분석에 의하였으며, 끈목의 구조 및 설계분석을 하여 실제 현미경과 광학 현미경을 통한 육안 고찰을 실시하였고 유물에 부착된 무기물 분석을 위해 SEM-EDX 분석 등을 행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조선시대 출토 허리끈의 유형

조선시대 출토 허리끈의 유형은 형태에 따라 단면이 둥근 원다회 대와 납작한 띠 형태의 광다회 대로 나눌 수 있다. 연구 대상인 총 18점의 조선 초·중기 출토 허리끈 가운데 원다회 대는 7점이었고 <Table 1> 광다회 대는 11점으로 <Table 3> 광다회의 수가 더 많았다. 이 들을 중심으로 살펴 본 조선 초·중기 출토 허리끈의 구조와 유형별 특징은 다음과 같다.

3.1.1. 원다회 대

<Table 1>은 조선시대 출토유물에 나타난 원다회를 원다회의 유형에 따라 분류한것이다. 원다회 대의 유형은 끈부의 형태가 원통형으로 된 것과 조선후기까지 쉽게 볼 수 있는 일자형으로 된 것의 두 가지유형이며 시기별로는 원통형의 것이 초기에 일자형의 것이 후기로 보이는 경향이 보인다.

원통형으로 된 원다회 대는 끈부인 몸체에 술 장식을 끼워 넣고 몸체의 끈을 서로 맞물려 이은 후 길이 1cm 남짓한 망

장식으로 이음새를 커버한 형태인데 이를 어떻게 착용 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알 수 없지만 두 가닥을 일자로 잡아서 허리끈으로 매었을 가능성이 높다. 송효상과 송희종의 원통형 원다회는 수식부가 원형으로 된 몸체에 다만 끼워져 있을 뿐 고정되지 않고 움직이게 되어 있다. 이와 유사하게 보이는 유물로는 전주이씨 문양군의 유물이 있는데 보고서에 상세한 설명이 없어서 그 유형과 치수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방울 술 부착 흔적이 있고 중간에 가락지 매듭과 유사한 용도의 장식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고 하여 여산 송씨 유물과 같은 형태의 원통형 원다회 대로 추정된다.

일반적으로 조선시대 원다회는 단일색상으로 짜여진 것과 오채 색으로 짠 원다회의 두 가지 유형의 원다회 대가 상용된 것임을 유물을 통하여 알 수 있다. 도포나 직령에 사용된 원다회 대는 여산 송씨 유물에서 나타난 원다회 대처럼 단색으로 짠 원다회가 통용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오채색의 색사로 짠 원다회 대는 심의와 같은 유학자의 상복에 특별한 장식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Fig. 1>과 <Fig. 2>는 조선시대 초상화에 나타난 원다회 대의 모습인데 두 초상화 모두 심의위에 심의 대를 두르고 그 위에 오채 색으로 꼬아 짠 원다회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실제로 이 같은 사실을 반증하는 유물로는 이익정(1699-1782) 묘출토 원다회인데 길이가 230cm 이며 심의대위에 오채사로 꼬아 만든 원다회가 함께 출토되었다.

Fig. 1. 송병화 (1852-1915) 초상 Fig. 2. 이재 (1680-1746) 초상

원다회의 길이는 원통형의 경우 400-450 cm에 이르고 일자형의 경우는 길이가 짧은 것이 84 cm이며 긴 것이 200-250 cm에 이른다. 이는 원통형의 경우 원통으로 된 끈을 길이로 맞잡아 잡게 되면 치수가 반으로 줄어서 200-225 cm가 되므로 조선 초 중기까지는 원다회의 길이는 200-250 cm의 범위로 나타났음을 알 수가 있다.

<Table 2> 원다회의 세부치수와 구조를 알아보기 위하여 원다회의 구조를 크게 끈 부인 몸체와 수식부인 술부로 나누어서 세부치수를 알아 본 것이다.

원다회의 경우 수식 부는 허리끈에서 주요한 의장미를 가지는 부분으로 끈 부와 술부의 연결부위를 매끄럽게 연결하는 망상 장식부와 술 장식부로 나뉘는데, 이러한 허리끈의 수식부인 술 장식은 허리끈을 둘렀을 때 실용적, 심미적 기능미를 동시에 가지는 역할을 한다. 특히 수식부중에서도 망상(網狀) 장식과 내부로 부터 비쳐 나오는 금박장식 기법은 뛰어난 의장미를 가지는 부분이다.

원다회에 대한 시기별 세부치수의 변화는 전체적으로 볼 때

문익신의 허리끈을 제외하고는 끈 부의 길이가 후대로 갈수록 짧아져 감을 알 수가 있고 1600년대를 기점으로 수식부의 슬이 한 개에서 두 개로 나타난다. 또한 수식부의 화려함과 정교함에 있어서도 후기로 갈수록 장식성이 덜하고 망상 장식이 없어지는 경향이 보인다. 조사된 원통형 원다회 대의 사용된 끈목의 직경범위는 0.3~1 cm 내외이고 후기로 갈수록 직경이 커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또한 일자형 원다회 대의 직경범위는 0.6~1 cm범위로서 원통형의 원다회의 직경이 일자형에 비해 적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 모든 변화양상들은 유물의 사례수가 적으므로 더 많은 출토유물들에 대한 사례발표 이후에 계속 연구 되어야 할 과제라 생각한다.

3.1.2. 광다회 대의 유형과 구조

<Table 3>과 <Table 4>는 조선시대 출토 광다회 대를 중심으로 시기별로 정리 한 표이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광다회 대의 길이는 대개 200~300 cm내외이며 너비는 1~3 cm내외가 됨을 알 수 있다. 구조는 원다회와 마찬가지로 몸체인 끈 부에 레이스 망과 같은 망상 장식과 술 장식이 연이어 있는 것이 조선시대 전시기에 걸쳐 거의 정형화되어 있다.

광다회대의 길이와 너비는 또한 원다회와 마찬가지로 1600년대를 기점으로 약간의 변화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600년대를 기점으로 수식부의 나비가 넓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길이는 크게 변화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광다회 대의 수식부인 망상장식 부위와 술 부위 치수는 일반적으로 망상장식의 길이가 2-3 cm내외이고 술부 치수는 길이범위가 3.5 cm에서 10 cm에 이르기 까지 그 범위가 크게 나타났다. 1600년대 유물인 진주 강씨와 이천기의 출토허리끈의 경우는 술부 길이가 타 유물에 비해 2배이고 술부의 나비 또한 3 cm로 타 유물의 거의 2배에 가깝다. 마찬가지로 출토유물이나 회화자료 등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계속 연구되어야 할 과제로 보인다.

Table 2. 원다회 대의 구조 및 세부 치수

표 주	치 수					비 고
	L (cm)				R (cm)	
	끈 부	수 식 부		전 체		
		망	술			
전주이씨 문양군-계윤 (1431~1489년)	상세 설명 없음	상세 설명 없음	상세 설명 없음	상세 설명 없음	상세 설명 없음	원통형 추정
송효상 (1430~1490추정)	404	1.2	6	404	0.3	-
문익신 (1556~1645)	178	5	17	200	1.1	한쪽 술만 달려 파손된 채 출토
송희종 (1600년대 중~후)	450	1	6.5	450	0.35	끊어진 채 출토 수식부 망상장식 속 금편
전주이씨 의원군 (1661~1722)	253	×	5.7×2	264.4	0.6	망상장식 없음
이익정 (1699-1782)	230	×	7×2	216	0.8	망상장식 없음
전주이씨 이연응 (1818~1879)	76	×	4×2	84	1	망상장식 없음 2조각 파손(더 길 가능성)

Table 3. 조선시대 출토 광다회 대

유형	출 토 유 물 내 역		
유물사진
묘주	송효상(1430~1490추정)	변수(1447~1542)	김흠조(1461~1528)
치수	L: 203, W: 1.7	L: 374, W: 2.5	L: 236, W: 2.1
유물사진
묘주	이인손(1477~1543)	군수공(1530초~1580)	이석명(1513~1583)
치수	L: 260, W: 1	L: 224, W: 2.5	L: 191, W: 1.9
유물사진
묘주	심수륜 (1534~1589)	이응태(1556~1586)	하음공(1541~1624)
치수	L: 232, W: 1.2	L: 216, W: 1.6	L: 297, W: 1.8
유물사진
묘주	이천기(1610~1666)	이행익(1636~1700)	
치수	L: 207.5 W: 3	L: 268, W: 3.1	

Table 4. 광다회 대의 구조 및 세부 치수

묘 주	치 수					비고
	끈 부	L (cm)		전 체	W (cm)	
		망	술			
송효상 (1430~1490추정)	191	2.9×2	6×2	216	1.7	망상 장식 속 금편
변 수 (1447~1542)	374	6×2		386	2.5	-
김흠조 (1461~1528)	236	2×2	7.5×2	251	2.1	-
이인손 (1477~1543)	260	?	?	260	1	-
고령신씨 군수공-여관 (1530초~1580)	203	9.5×2		222	2.5	레이스망 장식 속 백운모
이석명 (1513~1583)	143.5	2.5×2	3.5×2	155.5	1.9	꿇어진 끈 35.5
심수륜 (1534~1589)	214	2.5×2	6.5×2	232	1.2	레이스망 장식 속 금편
이응태 (1556~1586)	184	3×2	5×2	200	1.6 수식부: 상1.8/하2.7	레이스망 장식 속 반짝이는 부분 관찰됨
진주강씨 하음공-대호 (1541~1624)	248	24.5×2		297	1.8 수식부: 3	레이스망 장식 속 반짝이는 부분: 운모(雲母)또는 석영 추정
이천기 (1610~1666)	165.5	11.5×2	10.5×2	186.5	3	레이스망 장식 안쪽 반짝이는 금색물질 : 운모(雲母)또는 석영 추정
이행익 (1636~1700)	268	10×2		248	3.1	-

Fig. 3. 서직수(1735-?) 초상

Fig. 4. 박세채(1631-1695) 초상

Fig. 5. 조선기문(朝鮮記文) (사가현립 나고야성 박물관 소장)

<Fig. 3>과 <Fig. 4>는 광다회 대를 착용한 조선시대 서직수와 박세채의 초상화의 모습으로 착용방법과 형식에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다. 광다회 대를 두를 때는 일반적으로 편복인 직령과 도포위에 들렀는데 겨드랑이에서 앞 가슴위에 단정하게 고를 내어 묶었으며 그 길이는 거의 무릎아래 정강이에 이르는 길이이다.

<Fig. 5>는 사가 현립 나고야성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조선기문」(1711년)에 묘사된 대(帶와 그 착용모습인데 편복포가 아닌 관복에 사용된 광다회의 모습이지만 본 유물과 유

사한 광다회를 다른 패식들과 함께 차고 있는 광다회의 귀한 예시자료이다.

3.2. 여산 송씨 출토 허리끈의 구조 및 재질 분석

3.2.1. 구조분석

<Table 5>는 여산 송씨 출토 허리끈 3점에 대한 내역과 치수를 나타낸 표이고 <Fig. 6>은 여산 송씨 출토 허리끈의 유형과 구조에 대한 부위별 사진이다. 이를 통하여 고찰할 수 있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원다회 대와 광다회 대의 차이는 조선시대 출토 유물을 통하여 볼 때 형태적인 차이 외에 치수 면에 있어 광다회 대가 원다회 대에 비해 평균길이 약 50 cm내외로 길었음을 알 수 있었으나 원다회 대와 광다회 대가 함께 출토된 송효상 유물의 경우에는 원다회의 길이를 1/2로 보았을 경우 202 cm이고 광다회의 경우 203 cm이므로 치수가 거의 비슷함을 알 수 있었다.

원다회 대의 구조는 끈 부인 몸체와 수식부인 술부가 있으며 끈 부의 형태는 두 개의 원다회 대 모두 일자형이 아닌 원통형으로 이음새 부위에 망 장식이 있고 술부 상단에는 술부의 끈이 통과하기 위한 방울을 만들어 망 장식으로 방울을 가렸다. 방울 위로는 1 cm 정도의 고리가 올라와 수식부가 몸체에 걸리게 되어있어 원통형의 몸체에 술이 고정되지 않고 움직이게 되어 있었다.

술부 상단에 장식된 망 장식은 두 가지의 유형이 있는데 송효상의 것처럼 방울 망만 있는 것과 송희종의 것처럼 방울망아래 레이스 망이 연이어 장식된 것이 있다. 방울망의 단수는 12단으로 된 송효상의 것에 비해 송희종의 것이 방울치수가 적음에도 가는 실로 조밀하게 짜서 20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용된 술의 수 역시 송효상의 것이 280올이고 송희종의 것이 320가닥으로 레이스 망 장식을 한 송희종 원다회 대의 수식부가 훨씬 정교함을 알 수 있다. 술은 오른쪽으로 꼬인 우연이었으며 술 끝의 처리가 오늘날의 술처럼 잘려 있거나 구멍이 크게

Table 5. 여산 송씨 출토 허리끈내역과 치수

유물	묘주	유물 사진		색	재질	치수 (L,R/W, H/T)		비고
		전체	수식부			끈부	수식부(망)	
원다회 대	송효상 (15세기 후반)			갈변	견	L404, R0.3	전체: L7.2 방울망:H1.2, R1.8, 12단 레이스망: 없음	방울망만 있음
	송희종 (17세기 후반)			갈변	견	L450, R0.35	전체: L7.5 방울망:H1, R1.5, 20단 레이스망:L1.5, R1.3, 10단	-훼손이 심함 -방울망 터진부위 숨을 싸 감음
광다회 대	송효상 (15세기 후반)			갈변	견	L191, R1.7, T0.2	전체: L9 레이스망: L3, R2, 14단	-

구조	유형	원 다 회 대		광 다 회 대
		송효상	송희종	
끈 부
	망상장식부
	술장식부

Fig. 6. 여산 송씨 출토 허리끈의 유형과 구조

만들어져 있지 않아 오늘날의 술 처리와는 차이를 보였다.
광다회 대의 구조는 길이 203 cm, 직경 1.7 cm, 두께 0.2 cm의 납작한 띠로 된 끈 부와 레이스 망으로 곱게 장식된 술부로 되어있다. 끈 부의 실 직경이 0.9-0.95 mm로 원다회 대 실 직경인 0.5-0.6 mm에 비해 약 2배정도로 두꺼워서 조직이 단단하고 조밀하여 두께감을 준다. 술부의 상단의 레이스망은 약 3 cm 가량으로 섬세하게 짜여져 있으며 286올의 술이 달려있다. 레이스망의 아래쪽은 송희종 원다회 대의 레이스 망에서와 같이 반짝이는 부분이 남아 있다.

3.2.2. 재질분석

여산 송씨 출토 허리끈 3점에 대하여 FT-IR에 의한 재질분석과 관촬 현미경에 의한 섬유 표면형태 관찰을 통하여 분석한 결과 3점 모두 견으로 나타났으며 원다회 2점의 끈목 안에

Fig. 7. 허리끈의 FT-IR spectrum

Fig. 8. 허리끈 심사의 FT-IR spectrum

사용된 심사(芯絲)의 재질은 면임을 알 수 있었다.

아래 그림은 허리끈의 FT-IR spectrum으로 허리끈의 겉사로 3000 cm-1보다 약간 낮은 위치의 peak, 1500-1600 cm-1대 파수에 두 개의 강한 Amide I과 II의 peak, 690 cm-1대 파수의 Amide peak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견 섬유임을 알 수 있다. <Fig. 8>는 끈목 내측 심사(芯絲)의 FT-IR spectrum으로 3500-2600 cm-1사이에서 broad한 OH의 peak와 CH의 stretching peak가 나타나고 1000-1100 cm-1에서 CO의 stretch에 의한 peak가 나타나 셀룰로오스 섬유의 특성을 보이고 있어 면임을 확인할 수 있다.

3.2.3. 금편에 대한 분석

SEM-EDX를 이용하여 반짝이는 부분에 대한 성분을 분석하였다. 표면에서 금이 탈락된 부분과 아직 남아 있는 부분을 촬영하여 분석한 결과 금이 없는 표면과 금이 있는 표면은 확인

Fig. 10. 금이 있는 표면

Fig. 11. 금편의 성분 spectrum

히 달랐고 그 성분은 Au 81.72%, Ag 2.33%로 소량의 은이 섞인 금으로 확인 되었다(Fig. 10), <Fig. 11>.

이 같은 금편은 조선시대 타 유물에서도 나타나는데 보고서에 의하면 금, 석영, 또는 백운모 등으로 추정하고 있어 반짝이는 물질에 의한 시각적 효과를 돋보이게 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 같은 장식기법은 조선시대 남자 포에 두르는 허리끈의 조형미를 크게 돋보이게 하는 요소이다.

4. 결 언

본 연구는 대전 목달동 출토 조선 초·중기 여산 송씨 출토 허리끈을 중심으로 조선시대 출토 허리끈에 대한 형태변화와 구조를 살펴본 것으로 연구결과 조선시대 출토 허리끈은 원다회와 광대회로 분류되었다. 원다회의 유형은 끈 부인 몸체에 술 장식을 끼워 넣고 몸체의 끈을 서로 맞물려 이은 후 길이 1 cm 남짓한 망 장식으로 이음새를 커버한 원통형과 근래에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일자형의 두 유형으로 나타났으며 시기별 변화 추이는 조선 초 중기의 원통형에서 일자형으로 변화되면서 후기로 갈수록 폭이 넓어지고 길이가 길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광다회 대는 일반적으로 일자형으로 된 2-3 cm의 띠 형태의

몸체에 레이스와 같은 느낌의 정교한 술 장식이 달려 있는 것이 정형화된 형태로 나타났으며 1600년대를 기점으로 넓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허리끈의 구조는 두 유형 모두 크게 끈 부와 수식부로 나뉘었으며 특히 망상장식부와 술 장식 부를 가진 허리끈의 수식부는 조선시대 남자 복식의 의장미를 크게 돋보이게 하는 정교한 공예미를 지니고 있었다.

출토허리끈의 재질은 FT-IR 분석결과 모두 견이었으며 심사는 면으로 밝혀졌다. 또한 수식부의 망상장식 안쪽의 반짝이는 물질은 SEM-EDX 분석결과 금으로 밝혀졌다.

이상 본 연구는 조선시대 출토허리끈을 유형화하고 이에 따른 실 유물의 구조적 측면에서의 연구를 시도하였으나 향후 연구에 있어서는 착용법과 정확한 실물고증에 의한 허리끈의 재현 등에 대한 연구를 병행함으로써 조선시대 남자복식의 의장미와 전통매듭의 활성화를 위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감사의 글

이 논문은 부산대학교 자유과제 학술연구비(2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참고문헌

- 경기도박물관. (2001). 전주이씨묘 출토복식 조사보고서. 서울: 경기도박물관.
- 김인희, 박춘순. (1992). 대에 대한 연구. *충남생활과학연구지*, 5(1), 19-29.
-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민속박물관. (1984-2005). *한국복식*(제1-23권). 서울: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민속박물관.
- 도보선. (2006). *조선시대 품대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심부자, 전해숙. (1986). 문익신묘의 출토복식. *복식*, 10, 81-90.
- 안동대학교박물관. (1998). 판결사 김홍조 선생합장묘 발굴조사 보고서. 안동: 안동대학교박물관.
- 안동대학교박물관. (2000). 안동 정상동 일선문씨와 이응태 묘 발굴조사 보고서. 안동: 안동대학교박물관.
- 이순원, 유효선, 조우현. (2000). 이석명묘 출토복식 조사보고서. 서울: 서울대학교 박물관, pp. 119.
- 이은주, 박성실. (2005). *중요민속자료 지정명칭 및 유물명칭 변경 사례연구 제37호 이휴정 출토복식을 중심으로*. *복식*, 55(6), 107-120.
- 한국전통복식연구소. (2007). 대전 목달동 출토 조선 초·중기 여산 송씨 출토복식보고서. 대전: 한국전통복식연구소.

(2011년 3월 16일 접수/ 2011년 7월 6일 1차 수정/
2011년 8월 25일 2차 수정/2011년 10월 14일 3차 수정/
2011년 10월 14일 게재확정)